

노컷뉴스

섬 지역 택배비 부담 줄어드나...권익위 "정부 지원" 권고

입력 2022.05.25. 오전 10:39

육지와 연결된 전북, 전남, 충남 20여개 섬에
추가 요금 부과해 주민들 반발, 제주는 육지보다 6배가량 비싸
코로나19로 수요 늘며 부담 가중
권익위 '운송비용 지원·유가보조금 상향' 정부부처 요청



고군산군도 전경

섬 지역에 대한 택배비 추가 요금 부담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덜어줘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.

섬 지역의 택배 수요가 늘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

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'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'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.

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배송비 부담이 커졌지만, 추가 요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.

실제 내륙 상품을 섬 주민이 배송 받는 경우 택배비(5천원)에 더해 도선료(5천원), 영업소 위탁비(1천원)를 부담하고 있다.

섬 주민이 내륙으로 상품을 보낼 때도 도선료를 내야 한다.

섬 지역은 해상교통 여건 등에 따라 택배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주민의 배송비 부담은 크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.

특히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지역 택배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추가 배송비를 합한 제주지역의 평균 총 배송비는 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에 견줘 5.7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내륙과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추가 요금도 도마에 올랐다.

그동안 일부 택배 회사가 연륙교가 놓인 전북과 전남, 충남 지역 20여개 섬에서 기본요금 외에 4천~5천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해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.



이한형 기자

한진택배의 경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놓인 군산 야미도, 신시도, 선유도, 무녀도, 장자도, 대장도를 비롯해 목포·여수·신안, 서산의 일부 섬 지역 택배에 대해 추가 요금(4천원)을 부과하고 있다.

롯데택배는 군산 대장도, 여수 화태도·낭도·둔병도, 신안 임자도·자은도·안좌도·자라도·부소도·팔금도·암태도 등에서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.

권익위는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·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

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.

또한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연륙도서 등 물류 취약 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상향 등을 제안했다.

소외 낙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택배사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동 택배업무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.

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·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섬이 있는 전북, 전남, 충남, 경북, 경남, 제주, 경기, 인천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와 관할 33개 시·군에 이같이 권고했다.

또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해당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요구했다.

한편, 전국에 섬은 3383개에 달하고 이 중 유인도서에서 70만 8천 가구, 150만 9천명이 거주하고 있다.

※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.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,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애깃거리를 알려주세요.

이메일 : jebo@cbs.co.kr

카카오톡 : @노컷뉴스

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@cbs.co.kr

Copyright © 노컷뉴스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79/0003646838>